

「어고방(御考榜)」으로 살펴본 정조대 도과시험 고찰*

김희태**

차 례

1. 머리말
2. 「어고방」의 전래와 조사
3. 「어고방」의 내용과 특징
4. 맺음말

| 국문초록 |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소장 「어고방(御考榜)」은 1798년(정조 22) 광주목에서 설행된 과거시험 도과의 합격자 명부로 정조가 직접 내려 '어고(御考)'라는 첨지가 있다. 광주목 도과의 시(詩) 과목 시제가 면양정(倂仰亭) 송순(宋純, 1493~1582)의 회방연(1579년, 선조 12)과 관련이 있는 '하어면양정(荷輿倂仰亭)'이다. '하어면양정'의 시해(詩解)를 통하여 송순은 20세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문장력은 당세 으뜸이라는 점, 네 분 임금을 섬기면서 정도를 실행하였고 관직에서도 엄정하게 임했다는 점, 고향 면양정에서 우주를 두루 살피면서 유상 강화하였다는 점 등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심이나 60년 관직의 공정함 등을 강조하였다. 이같은 면양의 생평을 축하하고자 문인 제자와 인근고을의 수령들이 참여하였고 모두가 감탄하면서 광영의 자리가 되었고 죽여(竹輿)를 메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호남 선비의 기개를 기리면서 노래하게 한 뜻이 시제에 내포되어 있었다.

정조 임금이 지역 인재 선발을 내건 것이라 전라도 각지에서 유생이 참여하여 다섯 과목

* 본고는 「광주민속박물관 소장 「어고방(御考榜)」으로 살펴본 정조대 도과시험 고찰, 『면양정 송순 재조명을 위한 학술심포지움』, 담양군(주최), 담양문화원·한국시기문화학회(주관), 2020.12.18.(금)에 발표한 것을 보완·수정한 것이다.

** 전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중 세 과목을 객사인 광산관(光山館)에서 치렀다. 합격자 명부인 「어고방」은 69명의 호남 유생들의 과거 시험에 대한 기록으로 당시의 제도사는 물론 향촌사회사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어고방」에 수록된 69명 가운데 합격자는 53명이다. 가장 점수가 높은 2명(高廷鳳, 任興源)에게는 직부전시(直赴殿試) 자격을 주고 급분(給分) 14푼을 인정하였다. 다음 단계 성적을 받은 사람 2명(朴宗民, 鄭胄煥)은 경기전과 조경묘의 참봉(종9품) 벼슬을 주고 급분 12푼을 인정하였다. 16명의 차상(次上) 유생들에게는 『사기영선』, 『주서백선』, 『오률행실』 등의 서책과 붓과 먹과 종이를 하사하였다.

「어고방」 등재자 69명의 직역을 보면, 유학(幼學) 49명(33명, ()는 합격자 수, 이하 같다), 생원(生員) 7명(7), 진사(進士) 12명(12), 통덕랑(通德郎) 1명(1)이다. 통덕랑은 정5품 문신의 품계이다.

연령을 보면 최연소 25세부터 최고령 78세까지이다. 20대는 2명, 30대는 12명(7), 40대 20명(11), 50대 21명(21), 60대 12명(12), 70대 2명(2) 등이다.

성씨별로 보면 반남박씨 4명(4), 하동정씨 4명(3), 순천박씨 3명(2), 전주이씨 3명(3), 함평이씨 3명(1), 영일정씨 3명(3), 고령신씨 3명(1), 광주김씨 3명(2), 나주임씨 2명(2), 남원양씨 2명(1), 남원윤씨 2명(1), 연안이씨 2명(2), 풍천노씨 2명(1), 울산김씨 2명(2), 의령남씨 2명(2), 장택고씨 2명(2), 해주기씨 2명(2) 등이다. 1명을 낸 성씨는 25개(19) 성씨이다.

거주지별로 보면, 광주 23명(16), 순창 12명(6), 나주 6명(6), 창평 6명(5), 남원 4명(2), 보성 2명(2), 영광 2명(2), 장성 2명(2), 장흥 2명(2), 고부(1)·고창(1)·능주(1)·담양(1)·동복(1)·익산(1)·함평(1)·해남(1)·화순(1)·흥덕(1) 각 1명이다.

「어고방」은 고정봉에게 사급되었던 문서인데 원래 전하던 문서와 떨어져 있다가 지금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관련 문서인 수촌 고정봉 고문서도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광주 과거시험을 주제로 특별 기획전이 열렸고 고문서 해설 도록도 간행되었으며 고문서도 기증되었다. 그리고 김재박의 ‘하어면양정’ 시권, 김치복에게 내린 내사본 『사기영선』 등 원본 문서가 조사된 바 있다. 기학경의 ‘하어면양정’ 시는 문집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책(策) 과목의 ‘어제책문’으로 전하는 문서도 소재가 확인되었다. 보다 더 자세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유화의 길도 모색해 갔으면 한다.

핵심어 : 어고방, 과거시험, 광주목 도과, 하어면양정, 고정봉 고문서

1. 머리말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소장 ‘어고방(御考榜)’은 1798년(정조 22) 광주목에서 치러진 과거시험 합격자 명부로 정조가 직접 시험답안지를 채점하여 내려서 ‘어고(御考)’라 한다. 이 때 과거시험의 시(詩) 과목 시제가 면양정(旃仰亭) 송순(宋純, 1493~1582)의 회방연과 관련이 있는 ‘하어면양정(荷輿旃仰亭)’이다.

1798년 광주목(光州牧) 도과(道科) 관련 기록을 검토하면서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¹⁾ 이때의 자료 조사가 계기가 되어 수촌(水村) 고정봉(高廷鳳, 1743~1822) 선생 관련 고문서를 확인하게 되었다. 고정봉가 관련문서를 탐문하던 중 광주역사민속박물관²⁾에 ‘어고방(御考榜)’이 소장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조사를 겸하였다. 이 「어고방」은 원본에 별도로 붙어 있는 첩지(籤紙)를 통하여 고정봉가에 전래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기초 조사를 하면서 고정봉의 등과시말기(登科始末記)를 함께 정리³⁾하여 소개하였다.⁴⁾ 이를 계기로 광주민속박물관에서 <1798년 광주의 과거시험>을 주제로 특별전(2014.10.8~11.22.)을 개최하였고⁵⁾ 장흥고씨가 고문서 조사 보고서도 간행하였다.⁶⁾ 장흥고씨 수촌공파 문중(회장 고운석)에서는 광주민속박물관에 기증하였다.⁷⁾

1) 김희태, 「1798년 6월 18일, 광주목에서 ‘하어면양정(荷輿旃仰亭)’을 시제로 과거를 보다, 『향토문화』32, 향토문화개발협의회, 2013년, 65~100쪽. 이 글은 ‘조선후기 광주목(光州牧) 실행 도과(道科) 관련 기록의 검토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작성한 것인데, 논문에서는 도과의 발표일을 기준으로 6월 18일이라 하였으나, 실제 도과 시험날짜는 4월 13일이다.

2) 2014년에는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약칭 광주민속박물관)이었다. 2020년 6월1일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약칭 광주역사민속박물관)으로 개칭하였다. 조사 당시 내용을 언급할 때는 광주민속박물관으로 표기하겠다.

3) 김희태, 「조선후기 전라도 선비 고정봉의 등과시말기, 『광주 이장동 장흥고씨 고문서-수촌 고정봉선생 관련-』,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호남권한국학연구원, 2014.7, 18~50쪽(유인물).

4) 김희태, 「조선후기 과거시험 기록, 고정봉의 등과시말기(登科始末記), 『향토문화』34, 향토문화개발협의회, 2015, 67~120쪽.

5)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1798년 광주의 과거시험』, 2015.

6)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광주 이장동 장흥고씨 고문서』, 2015.

「어고방」에는 69명의 호남권 선비들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고씨가의 외에도 관련 고문서가 전해질 수 있고 문집 등에도 실려 있을법하다는 생각에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료를 소개한 결과예상대로 제보가 이어졌다.⁸⁾ 그리고 수촌 고정봉의 문집 선역⁹⁾, 고정봉의 등과시말기를 분석한 정조의 호남 공령과 연구¹⁰⁾ 등 후속 연구들이 이어져 나왔다.

본고에서는 1798년 「어고방」의 전래와 조사 경위, 「어고방」의 내용과 특징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어고방」은 원래 수촌 고정봉가에 전래 되어 온 것이다. 고정봉 관련 고문서의 조사 과정에서 「어고방」도 조사하였기에 함께 살펴보겠다.

2. 「어고방」의 전래와 조사

「어고방」의 전래와 조사에 대해서는 2014년 기초 조사 당시 일지 형식으로 정리한 ‘광주목 과거와 수촌 고정봉선생을 공부하면서’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광주 이장동 출신 수촌 고정봉 관련 고문서는 2014년 5월 24일에 소장처를 확인하였고 그 뒤 몇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문서는 모두 116점으로 호적문서 11점, 교령류(홍패, 교첩, 교지 등) 73점, 간찰첩 1점, 시권 26점 호패 2점, 성책문서 3점(門契冊, 看坪記, 位土台帳), 전적류 9책(필사본 4책, 간본

7) ‘장흥 고씨 문중, 고문서 110점 광주민속박물관에 기증’, 「연합뉴스」(<https://www.yna.co.kr>), 2016년 9월 30일.

8) 광주 상산김씨가(김용호님) 문서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시험에서 제출한 ‘하어면양정(荷輿俛仰亭)’ 시권이 전하고 있다.[자료 사진 3 참조]

9) 문희숙, 『『水村集』選譯 : 試券·登科始末記·記文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한문고전 번역협동과정 석사논문, 2017.

10) 조일형·이강복, 「정조의 호남 공령과 시행에 관한 연구-고정봉의 「등과시말기(登科始末記)」 분석을 통하여-」, 『호남문화연구』5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5, 333~362쪽.

5책)이 함께 진한다.

이 문서는 “광주목 과거” 관련 고정봉의 시권이나 문과 급제 흥패, 정조를 알현할 때 내린 가주서 교지, 이후의 관직 임명 고신 등 일련의 문서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금은 소장처를 달리하고 있지만 「어고방」도 전하고 있다. 고정봉과 손자(高性鎭, 1844년[헌종 10, 道光 24]) 급제, 증손자(高濟鎭, 1864년[고종 1, 同治 3]) 급제) 등 4대에 걸쳐 3대가 문과에 급제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임명장 뒷면에는 당시 문서를 발급할 때 이조(吏曹)의 필사자인 단골서리[吏吏]에 대한 기록도 확인된다.

조사하게 된 것은 2000년 전남도립대학에서 실시한 가사문화 관광지 해설가양성교육과정에서 “면양정 회방연, 광주목과거, 하여면양정(荷興俛仰亭)”을 언급한 것이 실마리이다.

그 뒤 2012년 1월 8일 당시 광주문화재단 전고필팀장으로부터 “광주목 과거” 시험 일자 고증과 재현에 대한 자문을 의뢰 받았던 것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광주목 과거” 시험에 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하였고 이 자료가 토대가 되어 2012년 11월 17일 광주광역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주최, 광주문화재단 주관으로 전통문화관에서 “나도 과거 시험 도전!”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 대본 감수와 진행 자문을 의뢰받았지만, 일신상의 사정으로 진행 자문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이 자료는 보완하여 『향토문화』32집¹¹⁾에 실었다.

이 같은 “광주목 과거” 조사 과정에서 고정봉의 문집 『수촌집』에서 「등과시 말기(登科始末記)」와 『전남의 향교』에 실린 광주향교 소장 「어고방」 자료를 보면서 관련 고문서들이 전래할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더하여 광주민속박물관 관계자(전 광주민속박물관 이종일님, 당시 학예실장 주인택님)과 토론을 하는 등 “광주목 과거” 관련 고문서 자료 탐문과 확인을 실시하였다.

11) 김희태, 「1798년 6월 18일, 광주목에서 ‘하여면양정(荷興俛仰亭)’을 시제로 과거를 보다, 앞 논문, 65~100쪽.

2014년 4월 5일 제봉 고경명 종가(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고원회 고택)와 고경명의 다섯째 아들 고유후(高由厚, 1574~1596, 해사공파(海槎公派) 파조) 후손이 사는 이장동 복수마을 일대를 답사하여 면담하거나 유선으로 고정봉 관련 자료에 대해서 탐문(제봉 종손 고원희님, 수촌공파 고희석님, 고운석님, 고행석님)한 바 있다. 몇 번의 연락과 답사 끝에 5월 24일 고문서 소장처를 확인하고 생가터로 전하는 곳과 묘소도 답사(고영민님, 고경석님 협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촌집』에 실린 등과시말기 역주 초본을 제본하여 문중에 제공하였는데, 마을회관에서 문중인들이 나누어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5월 28일 이틀에 걸쳐 자료를 조사(고형석님, 고경석님 협조)하였다. 종류별로 분류하면서 크기를 하나씩 측정하여 적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건강이 여의치 않아 하루 10시간이 넘는 사진촬영은 힘에 부쳐 중간에 쉬기를 몇 번씩 하였지만 새로운 자료의 확인이라 들뜬 마음으로 정리하였다. 광주목 과거시험일이 4월 13일이었으니 217년이 지난 바로 그 4월에 고문서를 조사하게 된 것이다.¹²⁾

6월 2일에는 광주향교를 방문해 조사하였다. “광주목 시취후 어고방(御考榜)” 사본의 복사본을 열람할 수 있었다. 진교 장원석님, 부진교 김용길님, 사무국장 박준규님, 광주광역시 문화재팀장 정선종님의 협조가 있었다.

그리고 1차 조사를 한 뒤 목록 정리 작업을 하다가 좀 더 자세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책임연구원 김경옥HK연구 교수)와 상의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터라 목포대팀과 상의했던 것이다.

7월 4일 목포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연구팀(고정서, 박선미, 최미영)과 함께 방문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보관·관리인과 협의가 잘 되어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으로 이관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조사한 고문서는 모두 116점이고 전적류는 9책으로 확인하였다.

12) 개인적으로는 가고(家故)의 후유증과 과로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던 터라 이 같은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은 더 의미가 있다.

7월 24일 고문서를 반납하기 위해 다시 방문하였다. 조사와 정밀촬영, 목록 정리를 마치고 나서였다. 그런데 보관 관리인이 출타 중이었고 당초의 보관시설은 열악하여 그대로 두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보관 관리인, 장흥고씨 수춘공파 문중 회장, 총무 등과 유선으로 협의하고, 광주민속박물관에 임시 위탁관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 협의(주인택실장, 조광철연구사, 서영미연구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관계관(정선중 문화재계장)도 함께 열람하였다. 광주민속박물관 임시위탁 과정에서 「어고방」을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또 하나의 소득이었다.

9월 6일 추석을 앞두고 조사 목록과 등과시말기 역주 자료를 합편하고 제본하여 20부를 보관 관리인에게 전하였다. 표지는 공공성을 갖추자는 의미에서 호남권한국학센터로 하였다. 명절에 문중 어른들이 모이면 조사 내용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것 같아 그간의 과정을 알려드리는 의미에서였다. 날짜를 정하여 문중 어른들께 설명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리라 여겨졌지만 필자의 사정상 여의치 못하였다. 그리고 이때 제본한 자료를 관련있는 분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제공하였다.

2015년 들어 광주민속박물관에서 2015년 기획전시회 주제가 “광주목 과거”로 확정되었고 예산까지 확보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기간은 10월중으로 예정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박물관의 특별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조형물 등을 제안¹³⁾ 한 터였다. 새로운 시작이 된 셈이다. 문제는 기획전과 발 맞춰 고정본 관련 문서 해설 자료집을 간행하는 것이다. 고정본의 향촌기반과 활동, 과거제도와 광주목 과거, 고문서 해제, 성격과 가치, 도판, 목록, 등과시말기 등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제안을 하였다.¹⁴⁾ 또 조선대 고전번역 관련 연구자가 『수춘집』 강독(매주 월 19:00 조선대 朝古堂)을 하고 있다는 소식(2015.4.30, 강

13) 김희태·김준, 「광주, 전남, 호남의 상생, 상생의 문화 -지역문화의 융성과 지역발전(3)-, 『생명전남』 제83호, 전남발전연구원, 2014.12. 40~52쪽.

14) 광주문화원연합회(회장 성현출 남구문화원장, 2015.04.22)와도 협의하였고 광주 남구청(문화관광과 양철훈님)에도 자료를 제공(2015.04.23)하였다.

독 지도 안동교 교수 면담)도 들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 “광주목 과거” 기획전, 고정봉 관련 고문서 해설 자료집, 도록, 수춘집 국역, 문화재 지정 등이 하나씩 이루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을 적었다.¹⁵⁾ 이 가운데 “광주목 과거시험” 기획전과 고문서 도록과 해설 자료집 발간은 이루어졌다. 수춘집 국역이나 고문서의 문화재 지정 등은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어고방」의 내용과 특징

「어고방(御考榜)」은 임금이 직접 검토하여 과거합격자를 발표한 방목이다. 길이는 28.2미터이다. 고정봉에게 사급(賜給)한 것인데 지금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798년(정조 22) 4월 13일에 광주목에서 도과(道科)가 실시하였고 6월 18일에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도과란 각 도의 관찰사에게 명하여 실시한 뒤 중앙에서 심사, 발표하거나 중신을 보내 현지에서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과거시험이었다. 이 시험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전시(殿試)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

광주목 과거시험은 정조가 1797년 광주목사 서형수(徐滢修, 1749~1824)¹⁶⁾에게 명하여 『어정대학연의(御定大學衍義)』와 『연의보(大義補)』, 『주자대전절약(朱子大全節約)』 등의 편찬과 교정 작업을 호남의 선비들에게 수행하도록 하는데서 연원이 된다. 서형수 목사의 글에 있는 정조의 분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15) 김희태, 『광주 이장동 장흥고씨 고문서-수춘 고정봉선생 관련-』,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호남권한국학연구센터, 2014.7(유인물).

16) 서형수는 병진(丙辰, 1796)에 문과 당상관(堂上官)으로서 광주목사에 부임하였다.(『광주읍지』읍선생(邑先生)조, 1924)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여 바쁜 정무의 여가에 손수 비점을 찍어가며 흠어진 정보를 모아 체계를 잡아 일관되게 정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 장마다 베껴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다. 지금 미처 하지 못한 것은 다만 분문(分門)하여 내용과 성격에 따라 재편성하는 작업뿐이다. 호남은 인재의 고장이다. 온 고을의 안목을 갖춘 선비들과 체제에 따라 분류하여 편집하고, 상호 교정하고 대조하여 올리도록 하라.”¹⁷⁾

정조로부터 명을 받은 서형수목사는 광주로 돌아 21읍(邑)의 선비 가운데 경학에 정통하고 고도(古道)를 배운 84명과 함께 토론하고 고증하며 하나하나 점검하였다. 모두 4개월이 지나 작업을 마쳐 총 20권을 이듬해 3월에 올리니 정조는 『대학유의(大學類義)』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노고에 보답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여기에 내가 손수 쓴 다섯 가지 과체문(科體文)의 시제(試題)와 구경(九經)의 조문(條問)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네가 광주로 가서 시험을 보이거라.”고 하교 하였다.¹⁸⁾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보자.

경의(經義)의 조문(條問)과 정문(程文)의 과제(課題)를 내리고, 《어정대학(御定大學)》과 주서(朱書)의 교정(校正)으로 광주목(光州牧)에서 호남의 제생(諸生)들을 시험보이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어정대학』과 주서 등본(謄本)의 교정은 체모가 자별하므로, 교정하는 제생들에게 공령문(功令文)으로 시험보이고 경서(經書)의 의의(疑義)를 물어서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여 교정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에 앞서 교정할 제생 가운데 혹 빠진 자가 있을지 모르니, 도신으로 하여금 다시 도내에서 본래부터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 일체 고교(考校)의 반열에 부처서 함께 응시하여 조대(條對)하게 하도록 하라. 광주는 도내의 한 중앙이므로 사람들이 타지로부터 이곳으로 모이는데 있어 도리(道里)가 서로 알맞고, 해당 수령 또한 문자(文字)의 일에 익숙한 사람이므로, 해당 고을에 회동(會同)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 연로하여 그곳에 올 수 없는 자에 대해서나, 또 혹 공령문에는 익숙하지 못하고 경의에만 익숙하다든지, 경의에는 익숙하지

17) 서형수, 「光州鄕校御題奉安閣記」, 『명고전집』 제8권.

18) 서형수, 「光州鄕校御題奉安閣記」, 『명고전집』 제8권.

못하고 공평문에만 익숙한 자에 대해서는 또한 모두 본인의 소원에 따라 응대(應對)하도록 하라.” 하였다.¹⁹⁾

이처럼 정조가 내린 『어정대학연의』와 『연의보』의 교정에 참여한 호남의 유생들의 노고를 가상히 여겨 초계문신(抄啓文臣) 친시(親試)의 규례에 준하여 호남 유생들을 시취하였던 것이다.

광주 도과 시험은 시(詩)·부(賦)·전(箋)·의(義)·책문(策文) 등 다섯 과목에 대한 시험을 3일 동안 실시했다. 호남 지역 인재선발을 목적으로 정조가 직접 시제를 출제하고 채점하였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제출된 과거시험 답안지(시권)와 합격방목에는 정조가 직접 검토하여 내림으로 ‘어고(御考)’라는 첨지가 있다.

당시 광주목 도과의 시험 주제는 시(詩)에 ‘하어면양정(荷輿俛仰亭)’, 부(賦)에 장군수(將軍樹), 전(箋)에 조경묘(肇慶廟) 건립, 의(詩義)에 『시경』의 “我圖爾居 莫如南土(내가 그대 머물 곳 물색해 보니 이 남쪽 땅만한 곳이 없어)”이다. 책(策)은 호남의 일곱가지 폐단(結役, 糶糶, 均稅, 漕轉, 軍政, 關防, 法令)²⁰⁾에 대한 정책 제안이다. 한사람이 세 과목에 응시하였고 채점한 점수를 산정하여 합격자를 가렸다.

시(詩) 과목의 시제(試題)인 “하어면양정(荷輿俛仰亭)”은 1579년(선조 12) 담양 면양정에서의 일에 대한 것이다. 면양정 송순(87세)의 과거 시험 합격 60주년을 맞아 회방연(回榜宴)이 열렸다.²¹⁾ 제자들인 제봉 고경명, 송강 정철 등과 광주, 담양, 창평 등 인근 군현의 수령들, 그리고 여러 축하객들이 참여하였다. 일행 가운데 정철이 나서서 “선생님을 위해 가마(竹輿)를 매자”라고 하자 송순을 가마에 태워 행진을 했다고 한다. 그 뒤로 200년이 지나 정조는 그 당시 호남 선비들의 풍류와 기개를 도과(道科)의 시 과목 시험 문제로 낸 것이다. 이 일

19) 『정조실록』48권, 정조 22년 4월 13일 정미.

20) 『홍제전서』권52 策文5 湖南 御定大學類義 朱子書節約校正儒生試取 戊午

21) 송순의 회방연에 대해서는 박종오, 「송순(宋純)이 경험한 특별한 의례, 회방연(回榜宴)」, 『한국사기문화연구』46, 한국사기문화학회, 2020, 121~146쪽 참조.

화에 대해서는 『면앙집(俛仰集)』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詩) : 면앙정에서 가마를 메다.(詩 : 荷輿俛仰亭)

해(解) : 담양부지(潭陽府誌)에 이르기를 송순의 호는 기촌(企村)이다. 스무살에 과거시험에 급제했으니 그 문장력은 당대에 으뜸이요 표준이었다. 네 분 임금을 섬기고 관직에서 물러나서 고향의 언덕에 정자를 마련하여 명칭을 면앙정이라 하였으니 대체적으로 면앙(俛仰)이라는 뜻은 우주를 두루 살펴본다는 뜻이다. 선생께서 임금을 사랑한다는 충성심은 여러 시구절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급제에 오른 지 60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면앙정에서 연 잔치는 마치 급제에 오른 당시와 같아서 온 전라도가 떠들썩하였다. 술기운이 절반이나 돌 무렵 당시 수찬 정철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이 선생님을 위하여 가마[竹輿]를 매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드디어 정인 임제, 현남 고경명, 교리 기대승²²⁾ 등이 가마를 붙들고 내려오자 여러 군현 수령들과 사방에서 모여든 하객들이 뒤를 따르니 사람들 모두가 감탄하여 광영으로 여겼다. 이는 실로 예전에는 없었던 훌륭한 행사였다.²³⁾

‘하어면앙정(荷輿俛仰亭)’의 시해(詩解)를 통하여 송순은 20세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문장력은 당세 으뜸이라는 평을 하고 있다. 또한 네 분의 임금을 섬기면서 정도를 실행하였고 관직에서도 엄정하게 임했다는 점, 고향 면앙정에서 우주를 두루 살펴면서 유상 강학하였다는 점 등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심이나 60년 관직의 공정함 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생평을 축하하고자 문인 제자와 인근 고을의 수령들이 참여하여 감탄하면서 광영의 자리가 되었고 죽여를 매게 되었다는 것이다. 면앙정 송순의 기개를 기리면서 노래하게 한 뜻이

22) 고봉 기대승(1527~1572)은 1572년 별세하는데 회방연은 1579년이라 재세연대로는 맞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참여자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3) “解 : 潭陽府誌曰 宋純號企村 二十登第 文章標望 爲世所宗 歷事四朝 退老林下 作亭家園岸上 名曰俛仰亭 蓋俛仰宇宙之意也 其愛君之誠 多形於篇詠 登第周甲日 設宴于俛仰亭上 如新恩時 一道簞觀 酒半 修撰鄭澈曰 吾儕爲此老荷竹輿可乎 遂與獻納高敬命 校理奇大升 正言林梯 掖上扶輿而下 邑宰及四隣來會者隨之 入皆嗟歎而榮之 此實前古所未有之盛事也”(어제(御製) 호남고준유생응제시제(湖南校準儒生應製試製), 『俛仰集』 권5 부록(한국문집총간 026집 284쪽); 『국역 면앙집』 하, 담양문화원, 1995, 101쪽~102쪽.)

내포되었던 것이다.

정조가 지역 인재 선발을 내건 것이라 전라도 각지에서 많은 선비들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시험은 다섯 과목 가운데 세 과목을 치르게 되는데 광주목의 객사인 광산관(光山館)이 과거 시험장이었다. 당시 제출된 시권은 거의 정조가 직접 채점을 하였고, 이를 임금이 직접 답안지를 검토하였다는 뜻의 ‘어고(御考)’라 적힌 첩지를 시권에 붙여 돌려주었다. 발표문에 해당하는 방목 또한 임금이 직접 내린다 해서 「어고방(御考榜)」이라고 하였다. 광주 도과의 시권은 149장이었다.

신은 즉시 공경히 받들고 와서 시험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령생(功令生) 69명이 시(詩), 부(賦), 전(箋), 의(義), 책(策)을 올려 거두어들인 시권 149장과 경의생(經義生) 25명이 작성한 조대(條對) 24책을 차례로 정리하여 역말을 띄워 올리자, 성상께서 손수 친필로 다섯 가지 과제문의 시권에 점수를 매기셨습니다.²⁴⁾

광주 과거시험 평가를 기록한 「어고방」은 앞부분에는 합격자 발표 연월일과 시험 일정이 기재되어 있다. 정조가 특별히 정해 준 『대학연의』, 『대학연의보』, 『주자대전절약』의 교정에 참여한 유생들을 대상으로 시·부·전·의·책 등 다섯 과목을 3일 동안 광주에서 실시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다섯 개 과목별로 개별 점수가 기록되어 있다. 먼저 성적 등급이 높은 순서이고, 같은 성적이면 시·부 등 과목 순서를 기준으로 내용을 기록하였다. 맨 처음에 박중민이 기재된 것은 전체 합격자 가운데 ‘이하(二下)’로 가장 높은 성적이었고 점수를 낸 과목이 시(詩)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함께 점수를 순위별로 기록하고 인적사항을 적었다. 유학이나 생원 등 직역과 성명, 나이, 본관, 거주지, 부친의 벼슬[또는 직역]과 이름, 현달한 선조의 시호나 관직과 이름, 관계 등을 표기하였다.

1798년 「어고방」에는 모두 69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합격자는 53명

24) 서형수, 「光州鄕校御題奉安閣記」, 『명고전집』 제8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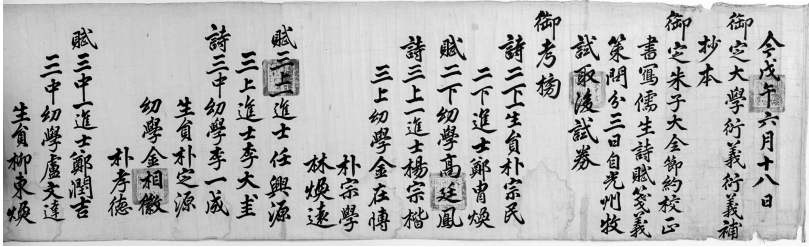


그림 1 1798년[정조 22] 6월 18일 「어고방」(앞 부분, 성적 표기 방식)
(詩 二下 朴宗民, 詩 三上 金在博)

이다. 가장 점수가 높은 2명(高廷鳳, 任興源)에게는 직부전시(直赴殿試) 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2차 시험 없이 임금 앞에서 치르는 3차 시험인 전시(殿試)를 바로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급분(給分) 14푼을 인정하였다. 급분이란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별도의 점수를 말한다. 성적이 비교적 양호한 사람에게 적당한 푼수(分數)를 주었다가 다음 시험의 성적과 합산하여 정해진 점수에 이르면 초시 합격자와 같은 자격을 주어 복시에 응하게 하는 제도였다.

다음 단계 성적을 받은 사람 2명 박종민(朴宗民)과 정주환(鄭胄煥)은 경기 전과 조경묘의 참봉(종9품) 벼슬을 주고 급분 12푼을 인정하였다. 전주에 있는 조선 왕실 발상지 관련 유적 관리 책임자라 하겠다.

조선왕조실록기사에도 고정봉과 임흥원, 박종민, 정주환 등 4명의 인명이 보인다.

“특히 사·부·전·의·책 다섯 가지를 가지고 날짜를 나누어서 제술을 시험하였는데, 올려 보낸 여러 시권들을 보니 절구(傑句)와 가작(佳作)이 많았다. 생각건대 지금 이 재능을 살피고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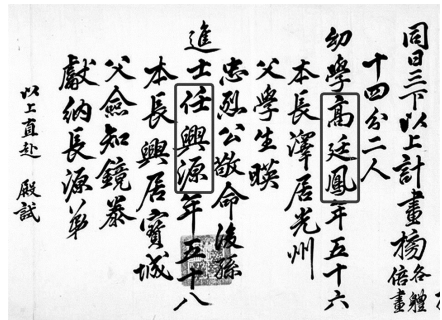


그림 2 「어고방」명단 표기 방식
고재봉, 임흥원 급분14, 직부전시

을 비교하는 일은 곧 호남의 재능 품은 선비들의 명성을 천양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 비로소 등제(等第)를 나누노라.” 그 내용은 1등을 차지한 고정봉(高廷鳳)·임흥원(任興源)에게는 사제(賜第)하고, 그 다음인 박종민(朴宗民)·정주환(鄭胄煥)은 초사(初仕)로 등용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차등 있게 시상하라는 것이었다.²⁵⁾

사제(賜第)는 정조의 특명으로 대과 회시(會試) 합격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여 전시(殿試)를 바로 치를 수 있도록 한 조치를 말하고, 초사(初仕)는 서사(筮仕)라고도 하며 첫 벼슬을 내려주었다 것을 의미한다.²⁶⁾

『광주읍지』(1924년)의 다음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삼하(三下) 이상 53명의 합격자를 선발하여 2명은 급제(及第), 2명은 서사(筮仕)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들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언급한 4명이다. 그리고 49명에게는 발해(發解)를 하사하고 차상(次上)의 유생들에게는 『사기영선』²⁷⁾, 『주서백선』²⁸⁾, 『오륜행실』²⁹⁾ 등의 서책과 붓과 먹과 종이를 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해(發解)란 주현(州縣)의 과거에 급제한 유생들을 해당 지방 관청에서 중앙 정부에 공진(貢進)하는 일을 말한다. 공문서를 중앙 정부에 보내어 거인(舉人)을 서울[京師]에서 과거에 응시하도록 하는 일이다.

정종(正宗) 무오(戊午, 1798년)에 본도(本道, 전라도)의 선비[儒生]들에게 명하여 경서(經書)의 뜻을 논하게 하였다. 이어서 시(詩), 부(賦), 진(箋), 의(義), 책(策) 과목으로 서형수(徐滢修) 목사에게 명하여 시권(試券)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고(御考)를 기준으로 하여 삼하(三下) 점수 이상을 받은 53명을 뽑아서 두명에

25) 『정조실록』48권, 정조 22년 6월 18일 경술.

26) 법제처, 『고법전용어집』, 1979, 388쪽, 430쪽, 801쪽.

27) 『사기영선(史記英選)』: 조선 정조가 중국 사마천(司馬遷)의 『사기』와 반고(班固)의 『한서(漢書)』에서 중요부분을 뽑아 엮은 책.

28) 『주서백선(朱書百選)』: 조선 정조가 중국 주희(朱熹)의 편지 가운데 가장 요긴한 내용 100편을 뽑아 모은 책. 1794년(정조 18) 내각 간행. 활자본.

29)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1797년(정조 21)에 이병모(李秉模) 등이 왕명에 의하여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하여 수정, 편찬한 책. 고흥자 정리자 간행.

계는 급제(及第)를, 두명에게는 서사(筮仕)를, 49명에게는 발해(發解)를 하사하였다. 그리고 차상(次上)의 여러 선비들에게는 붓과 먹과 종이와 서책을 차이가 있게 하사하였다.³⁰⁾

차상(次上) 16명은 합격권에서는 벗어났지만 예우차원에서 올리고, 세 단계로 나누어 『오률행실도』, 『사기영선』, 『주서백선』 등 정조가 하사한 책[內賜本]과 붓, 먹, 종이 등을 상으로 내렸다. 광주목 과거시험 합격자(53명)와 차상자(16명) 예우는 다음과 같다.

<표 1> 1798년 광주목 과거시험 합격자와 차상자 예우³¹⁾

구분	예우	인원	성명
합격	문과 전시(최종시험) 응시 자격을 줌. 급분(給分) 14분을 인정함	2명	高廷鳳 任興源
	참봉(종9품)벼슬을 줌 급분 12분을 인정함	2명	朴宗民 鄭胄煥
	문과 회시(2차 시험) 응시자격을 줌. 급분 10분을 인정함. 2분을 더 가산해 줌	1명	柳東煥
	급분 8분을 인정함	6명	金在博 朴定源 林煥遠 吳相淳 李大圭 朴宗學
	급분 6분을 인정함	5명	柳翔之 奇學敬 楊宗楷 盧翼遠 鄭潤吉
	급분 4분을 인정함	13명	李昌祐 高廷說 南燧 朴道欽 鄭在勉 李一成 金相徽 盧文達 朴孝德 鄭教煥 李得一 尹致觀 邊相璨

30) 『광주읍지』(1924년) 어제봉안각(御製奉安閣) 조

31) 광주민속박물관, 『1798년 광주의 과거시험』, 2015, 81쪽 표를 보완함.

구분	예우	인원	성명
합격	금분 2푼을 인정함 1푼을 더 가산해 줌	24명	崔滂之 申斗權 閔致根 金在鉉 朴重源 鄭鳴東 鄭潤行 林炳遠 李永緒 奇商履 南極曄 金百休 李如樸 李志文 朴聖潛 崔鼎奎 曹翊鉉 李宜協 尹情 李以鍊 朴聖濂 魏伯純 金頤祖 李尙薰
차상 (次上)	<오륜행실도> 1건, 후지 5권, 붓 5자루, 먹 5홀을 하사함	3명	李成曄 金履廉 尹致彦
	<사기영선> 1건, 후지 4권, 붓 4자루, 먹 4홀을 하사함	8명	金致福 柳相喬 盧稷 趙泓曄 申輔權 金致儀 楊得熙 申宗權
	<주서백선> 1건, 후지 3권, 붓 3자루, 먹 3홀을 하사함	5명	李性傳 鄭義燦 朴明植 李載燮 韓啓斗

「어고방」등재자 69명의 직역을 보면, 유학(幼學) 49명(33명³²⁾), 생원(生員) 7명(7), 진사(進士) 12명(12), 통덕랑(通德郎) 1명(1)이다. 통덕랑은 정5품 문신의 품계이다.

연령을 보면 최연소 25세부터 최고령 78세까지이다. 20대는 2명, 30대는 12명(7), 40대 20명(11), 50대 21명(21), 60대 12명(12), 70대 2명(2) 등이다.

성씨별로 보면, 2명 이상을 낸 성씨는 반남박씨 4명(4), 하동정씨 4명(3), 순천박씨 3명(2), 전주이씨 3명(3), 함평이씨 3명(1), 영일정씨 3명(3), 고령신씨 3명(1), 광주김씨 3명(2), 나주임씨 2명(2), 남원양씨 2명(1), 남원윤씨 2명(1), 연안이씨 2명(2), 풍천노씨 2명(1), 울산김씨 2명(2), 의령남씨 2명(2), 장택고씨 2명(2), 행주기씨 2명(2) 등이다. 1명을 낸 성씨는 25개(19) 성씨이다.³³⁾

거주지별로 보면, 광주 23명(16), 순창 12명(6)명, 나주 6명(6), 광평 6명(5),

32) ()의 숫자는 합격자 수이다. 이하 같다.

33) 강화최(1), 경주최(1), 광산김(1), 광산노(1), 광산이(1), 나주오씨(1), 문화유, 밀양박(1), 상산김(1), 瑞寧柳(1), 순창조, 안동김, 여흥민(1), 寧川李, 永川李, 원주이(1), 장흥위(1), 장흥임(1), 전의이(1), 전주유(1), 창령조(1), 청주한, 충주박(1), 해남윤(1), 황주변(1)이다.

남원 4명(2), 보성 2명(2), 영광 2명(2), 장성 2명(2), 장흥 2명(2), 고부(1)·고창(1)·능주(1)·담양(1)·동북(1)·익산(1)·함평(1)·해남(1)·화순(1)·홍덕(1) 각 1명이다.

부(父)의 직역을 보면 학생(學生)이 35명(28)으로 가장 많다. 유학(幼學)은 10명(3)이다. 생원 3명(3), 진사 3명(3), 첨지 3명(2), 통덕랑 3명(3), 감찰 1명(1), 교리 1명(1), 도정 1명(1), 동지 1명(1), 부사직 1명(1), 장령 1명(1), 부술 1명(1), 현감 1명(1), 참봉 1명(1), 참의 1명(1) 등이다.

다음으로 광주 도과와 관련된 인물들의 기록이나 자료를 살펴보자.

광주 고정봉(高廷鳳, 1743~1822)은 본관은 장택(長澤), 호는 수촌(水村³⁴)이다. 고가익(高可翼)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고한정(高漢貞)이고, 아버지는 고영(高暎)이며, 어머니는 김기서(金麒瑞)의 딸이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부는 이하(二下)의 점수로 부에서 수석(魁)을 차지하였고, 의는 삼중(三中)의 점수, 책은 삼하(三下)의 점수로 장원에 해당하여 직부진시의 특진으로 숙배(肅拜)를 드릴 때 고경명(高敬命)의 후예라 하여 특히 우대하라는 하교가 있었다. 그의 문집인 『수촌집(水村集)』³⁵에 ‘將軍樹(賦), 問湖南七弊(策), 我圖爾居 莫如南土(義)와 같이 당시 고정봉이 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답안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등과시말기(登科始末記)’를 통해 광주 도과의 경우, 3일에 걸쳐 초장(詩, 賦), 중장(箋, 義), 종장(對策)으로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³⁶ 1800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812년(순조 12) 홍문관 교리가 되었고, 이어 돈녕부 도정을 역임하였다. 승진을 구하지 않고 학문에 힘썼으며, 효행과 문장이 널리 알려져 판서 김겸(金謙)은 ‘동국의 안자(顏子)’라 칭하였다.

광주 기학경(奇學敬, 1741~1809)은 시, 의, 책 세 분야에 응시하여 시는 삼

34) 수촌(水村)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에는 ‘守村’으로 표기하고 있다.

35) 『수촌집』 ; 국립중앙도서관[BA3648-03-32]

36) 고정봉, 「등과시말기」, 『수촌집』 권3. 「등과시말기」에 대해서는 김희태, 「조선후기 과거시험 기록, 고정봉의 등과시말기(登科始末記)」, 앞의 논문, 67~120쪽.

하(三下), 의는 초서로 삼하(三下), 책은 초서로 삼하(三下)의 성적을 받았다. 그의 문집에는 ‘하어명양정(荷輿俛仰亭)’에 대한 시와 ‘문호남칠책(問湖南七弊)’의 책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하어명양정’에서는 “임금님께서 늙은 스승을 우대하시어 편안한 수레 하사(下賜)하시어 여생을 위로하시네. … 호남(湖南)의 고품스런 일, 성대함이 이 같으니, 시편(詩篇)으로 그러서 궁궐의 임금님께 올리세.”³⁷⁾라 하였다.

기학경은 1783년(정조 7) 사마시에 합격하고 1797년 『대학연의』 등의 교정에 참여하고 1798년 광주목 도과에 합격하였다. 1801년(순조 1) 문과에 급제한 뒤



그림 3 1798년 김재박이
광주 도과에 응시하여 제출한
시험답안지(詩)

정자(正字)를 거쳐 사간원 정언에 임명되었다. 이때 국정에 관한 칠조소(七條疏)를 올렸는데, ‘성학(聖學)을 부지런히 하고, 기강을 진작시키고 인재를 얻고 폐단을 바로잡고, 조그만 현(縣)을 혁파하고, 구임(久任)을 책임지우고, 군정(軍政)을 정비할 것³⁸⁾’ 등이었다. 그 뒤 무장현감, 홍문관 수찬과 교리 등을 지냈다. 저서에 『검재집』이 있다.

광주 김재박(金在博)은 조봉춘[현 봉선동] 출신으로 시 과목 ‘하어명양정(荷輿俛仰亭)’에서 작성한 시권이 급분 8분의 점수를 받는데 원본 고문서가 후손가에 전한다.³⁹⁾ “어고(御考)”라는 제침이 그대로 있다.⁴⁰⁾ 김재박의 ‘하어명양정’ 시

37) 聖主亦加優老傳 賜以安車慰殘齡 … 湖南古事盛如此 撰以詩篇上禁局(『검재집』 권1 「荷輿俛仰亭」)

38) 『순조실록』 4권, 순조 2년 8월 16일 갑자.

39) 원본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상산김씨가에 소장되어 있다.

40)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팀에서 조사를 하여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는 “넓은 호남에 인재 마을을 여니 성조의 원기 모여드네. 이 고을에 태어난 훌륭한 선비 의기투합하여 자주 만나 시대를 밝히네. … 때때로 웃고 냄새 맡은 장원랑 작년의 경화 전형을 두었네. 함께 사현이 되어 원개의 조정에 오르네.”⁴¹⁾라 하였다.

광주 김치복(金致福, 1754~1815)은 시와 전(箋)에서 차상(次上)에 올라 『사기영선』과 지·필·묵(紙·筆·墨)을 각각 네종류의 물품을 하사 받았다. 『일성록』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김치복에게 『사기영선』과 지필묵을 하사한 고문서와 내사본 『사기영선』이 전하고 있다. 내사기와 『일성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內賜記：御定冊子 校正 儒生 應製/御考詩箋 次上 幼學 金致福/內下安 寶史記 英選 一件 厚紙/四卷 筆四枝 墨四笏 賜給/嘉慶三年六月 日⁴²⁾

모두 등급을 나누어 소정의 분수(分數)를 주고 차등 있게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 두 차례 차상을 한 유학 김치복 -시와 전이다.- … 등에게는 책자와 종이·붓·먹을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도록 내각에 통지하다. - 3차례 차상을 한 사람들에게는 … 2차례 차상을 한 사람들에게는 각각 『사기영선』 1건씩을 대내에서 내려 주고, 후지 4권, 붓 4자루, 먹 4홀씩을 본도의 도신이 시상하게 하였다. …⁴³⁾

김치복은 1805년(순조 5, 을축)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29위로 급제하였다. 뒤에 성균관 전적(1806년), 사헌부 감찰, 예조 좌랑(1807년), 사헌부 지평,

(<http://hmkostma.org>)에 올라 있다.

- 41) “大湖南岬人材府 聖朝元氣茲畜淳 多士濟濟生此州 風雲盛會明時丁 … 時時笑嘆壯元郎 去年瓊花留典形 非徒林下見一人 四賢俱登元凱庭”(김재박의 「하여면양정」시권, 광주 개인 소장)
- 42) 김치복과 동생 김치덕 관련 고문서는 장성군 진원면에 거주하고 있는 6세 후손 김종덕(鍾應)씨가 보관하고 있다. 김대현·정지용, 「기록유산」, 『광주 충효동 성안 사람들의 삶과 삶』 -호남 전통 문화 마을지총서-, 심미안, 2007, 155쪽~162쪽.
- 43) “皆分等給分施賞有差 … 兩次次上幼學金致福 詩箋 … 等冊子紙筆墨分等施賞令內閣知悉 三次次上 … 兩次次上 各史記英選一件內下厚紙四卷筆四枝墨四笏令本道道臣施賞 …”(『일성록』 정조 22년 6월 18일).

용양위 부사과, 용양위 부사직, 사간언 정원(1814년) 등을 지냈다.

남원 노익원(盧翼遠, 1746~1815)은 유학으로 응시하여 의초(義草)과목에서 초서로 삼중(三中), 책초(策草)과목에서 초서로 삼하(三下)의 성적을 받았다. 책초(策草)와 의초(義草)는 시험지를 초서로 써낸 것을 말한다. 16세기 이후로 과거시험에서는 초서로 쓴 시험지를 따로 받아 채점하는 제도가 있었다. 1798년(정조 22) 11월의 구언 전지에 따라 농서를 올린 40명 가운데 한사람으로 『정조실록』에 언급된다.⁴⁴⁾ 이후 1799년 5월에 노익원이 올린 농서를 내각 농서에 편입토록 한 사실도 확인된다.⁴⁵⁾ 노익원은 유의(儒醫) 한방렬(韓昉烈, 1755~?)이 지은 의서 『매정보감(梅亭寶鑑)』의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전통시대의 농서는 국가경영의 기본이 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의서는 인간 경영의 한 단면일 것이다. 『매정보감』은 한방렬이 소아 의안을 채집, 수록한 소아 두창(痘瘡) 전문서이다.⁴⁶⁾

장흥 김상휘(金相徽)는 시 과목에서 삼중(三中), 의(義) 과목에서 차상, 책 과목에서는 삼하(三下)의 성적을 받아 여섯번째 단계(13명)에 들어 급분 4등을 인정받았다. 그의 직역은 유학(幼學) 직역으로 나이는 52세, 본관은 광산(光山), 거주지는 장흥이며, 부친은 통덕랑 김종택(金宗澤), 충숙공(忠肅公) 김심(金深)의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다.

장흥 위백순(魏伯純, 1737~1815)은 부(賦) 과목에서 차상(次上), 의초(義草) 과목에서 초서로 차상, 책초(策草) 과목에서 초서로 삼하(三下)의 성적을 받았고, 일곱 번째 단계(24명)에 들어 급분 3등을 인정받았다. 위백순의 직역은 생원으로 나이는 63세, 본관은 장흥, 거주지는 장흥이며, 부친은 진사 위문덕(魏文德)이고 현감 위백규(魏伯珪, 1727~1798)의 동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백순의 『서계유고』에는 ‘농소’나 칠정책 등이 있다.⁴⁷⁾

44) 『정조실록』50권, 정조 22년 11월 30일 기축.

45) 『일성록』, 정조 23년 5월 22일 기묘.

46) 박훈평·안상우, 「한방렬의 매정보감 연구」, 『한국의사학회지』30-1, 한국의사학회, 2017, 1~9쪽.

47) 김희태, 「1798년 광주 과거시험 어고방(御考榜)에 든 장흥 선비들 -광산김씨 김상휘, 장흥

한편,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소장과는 다른 광주목 도과의 ‘어고방목(御考榜目)’이 어제(御題), 어제조문(御製條問)과 함께 광주향교 명륜당에도 보관되었다. 당대 기록인 광주목사 서형수의 기문과 1841년(헌종 7) 광주목사 조철영(趙徹永)⁴⁸⁾의 기문, 그리고 1924년『광주읍지』기록을 통해 변화상도 함께 알 수 있다.

“어제(御題)와 어제조문(御製條問)과 어고방목(御考榜目)을 광주 향교에 봉안 하라고 명하시고, 신 형수(滢修)로 하여금 그 일을 기록하여 문미[楣]에 걸어 영원 히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⁴⁹⁾

경의 조문 책과 어제방목을 교궁의 명륜당 벽위에 종이 상자에 봉안하였다. 신 축년(1841년) 8월 11일 밤에 명륜당이 불이나 모두 회흑하던 중에 경의조문책은 실 화전에 등출본이 있었다. 어제와 방목은 그 당시 과거시험에 참여 했던 선비 집에 소장하고 있던 것 한통을 선사(繕寫)하여 홍보(紅褌)에 담아 상자에 보관하던 중에 명륜당이 개건되자 나무 상자를 조성하여 신축년 9월에 전처럼 봉안하였다.⁵⁰⁾

어제(御製) 및 방목(榜目)은 별도로 2권의 책을 만들어 나무로 만든 궤에 담아 명륜당(明倫堂)의 들보 위에 모시고 이로 인하여 명칭을 봉안각(奉安閣)이라 하였다.⁵¹⁾

위씨 위백순-, 『장흥문화』38, 2016.

48) 조철영은 헌종 신축(辛丑, 1841)에 음사(蔭仕) 당하관(堂下官)으로서 부임하였다.(『광주읍지』읍선생(邑先生)조, 1924)

49) “於是命以御題及御製條問御考榜目奉安于州之鄉校俾臣滢修記其事而揭之楣以徵諸久遠”(서형수, 『光州鄉校御題奉安閣記』, 『명고전집』 제8권.) 서형수의 기문은 1798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광주목지(光州牧志)』(1799년경, 규장각 소장, 奎10800) 교원(校院)조에 실려 있다.

50) “經義條問冊及御題及榜目奉安于校宮明倫堂壁上紙藏 辛丑八月十一日夜 明倫堂失火俱入於回祿中 經義條問冊失火之前有謄出本 御題及榜目則 其時參榜人家有奉藏者 故一通繕寫 裹以紅褌 納于櫃中 改建明倫堂 造成木櫥而依前奉安辛丑九月日”(조철영(趙徹永), 『봉안기』, 『전남의 향교』, 전라남도, 1987, 1002~1003쪽.)

51) “御題及榜目別成二冊 置木櫥 奉安于明倫堂櫥上 因名爲奉安閣”(『광주읍지』(1924년) 학교향교 어제봉안각(御製奉安閣) 조.)

서형수 목사의 1798년 기록에서는 어제, 어제조문⁵²⁾, 어고방목[어고방]을 문미에 걸어[揭之楣] 진하라 하였다는 내용이다. 조철영목사의 1841년 글에서는 명륜당 벽위[壁上]에 종이 상자[壁上紙櫥]에 보관하였다고 한다. 1924년 기록은 어제와 방목을 별도로 2권을 만들어[別成二冊] 나무 궤에 담아[置木櫥] 명륜당 들보위[樑上]에 모신다고 하였다. 문미와 들보는 건조물의 구조체이다. 이들 구조체는 벽위[壁上]에 있다. 강의 공간인 명륜당에 누상고(樓上庫)고 형태로 보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조가 직접 내린 어고 시제와 방목이라는 점에서 봉안각이라 한 것 같다.

그런데 광주향교 명륜당이 1841년(헌종 7, 신축) 8월 11일 밤에 실화로 훼손되기에 이른다.⁵³⁾ 경의조문은 실화 전에 등출본이 있었다. 어제와 방목은 과거 시험에 참여했던 사람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사본을 만들어 홍보에 담아 나무상자에 봉안하였다. 이 사본이 『광주읍지』에 기재된 ‘별도로 만든 2권 [別成二冊]’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철영 목사의 기문에 나오는 ‘참방인 집에 보관된 문서[其時叅榜人家有奉藏者]’는 바로 고정봉가 전래 ‘어고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5. 맺음말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소장 「어고방(御考榜)」은 1798년(정조 22) 광주목에서 설행된 도과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작성한 문서로 정조가 직접 시험 답안지를 채점하고 내렸다는 의미에서 ‘어고방(御考榜)’이라고 한다. 이 도과 시험의 시 과목에서 시제는 면양정 송순(1493~1582)의 회방연(1579년)과 관련

52) 최근 「어제책문」 원본으로 주장하는 문서(소장자 한학자 김경욱)가 공개된 바 있다. “호남 문화원, 광주향교에서 정조대왕 ‘어제책문’ 공개”, 「유교신문」 2019년 2월 2일자 기사.

53) 1841년(신축) 화재를 입은 명륜당은 목사 조철영이 중건하고 영상 조인영(趙寅永)이 비문을 지어 명륜당 중수비(明倫堂重修碑)를 세운다.

이 있는 ‘하어면앙정(荷輿俛仰亭)’이었다. ‘하어면앙정’의 시해를 통하여 송순은 20세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문장력은 당세 으뜸이라는 점, 네 분의 임금을 섬기면서 정도를 실행하였고 관직에서도 엄정하게 임했다는 점, 고향 면앙정에서 우주를 두루 살피면서 유상 강학하였다는 점 등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심이나 60년 관직의 공정함 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송순의 생평을 축하고자 문인 제자와 인근고을의 수령들이 참여하여 감탄하면서 광영의 자리가 되었고 죽여를 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호남 선비의 기개를 기리면서 노래하게 한 뜻이 시제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조가 지역 인재 선발을 내건 것이라 전라도 각지에서 유생들이 참여하여 다섯 과목 가운데 세 과목을 광주목 객사인 광산관(光山館)에서 행해졌다. 합격자 명부인 「어고방」은 69명의 호남 유생들의 과거 시험에 대한 기록으로 당시의 제도사는 물론 향촌사회사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어고방」의 69명 가운데 합격자는 53명이다. 가장 점수가 높은 고정봉(高廷鳳)과 임흥원(任興源) 두 사람에게는 직부진시(直赴殿試)의 자격이 주어졌다. 2차 시험을 보지 않고 바로 임금 앞에서 치루는 3차 시험인 진시(殿試)를 치를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급분(給分) 14푼을 인정하였다. 다음 단계 성적을 받은 사람 박종민(朴宗民)과 정주환(鄭胄煥) 두 사람에게는 경기전과 조정묘의 참봉(종9품) 벼슬을 주고 급분 12푼을 인정하였다. 전주에 있는 조선 왕실 관련 유적 관리 책임자라 하겠다. 16명의 차상(次上) 유생들에게는 『사기영선』, 『주서백선』, 『오륜행실』 등의 서책과 붓과 먹과 종이를 하사하였다.

「어고방」등재자 69명의 직역을 보면, 유학(幼學) 49명(33명⁵⁴), 생원(生員) 7명(7), 진사(進士) 12명(12), 통덕랑(通德郎) 1명(1)이다. 통덕랑은 정5품 문신의 품계이다.

연령을 보면 최연소 25세부터 최고령 78세까지이다. 20대는 2명, 30대는 12

54) ()의 숫자는 합격자 수이다. 이하 같다.

명(7), 40대 20명(11), 50대 21명(21), 60대 12명(12), 70대 2명(2) 등이다.

성씨별로 보면, 2명 이상을 낸 성씨는 반남박씨 4명(4), 하동정씨 4명(3), 순천박씨 3명(2), 전주이씨 3명(3), 함평이씨 3명(1), 영일정씨 3명(3), 고령신씨 3명(1), 광주김씨 3명(2), 나주임씨 2명(2), 남원양씨 2명(1), 남원윤씨 2명(1), 연안이씨 2명(2), 풍천노씨 2명(1), 울산김씨 2명(2), 의령남씨 2명(2), 장택고씨 2명(2), 행주기씨 2명(2) 등이다. 1명을 낸 성씨는 25개(19) 성씨이다.⁵⁵⁾

거주지별로 보면, 광주 23명(16), 순창 12명(6)명, 나주 6명(6), 창평 6명(5), 남원 4명(2), 보성 2명(2), 영광 2명(2), 장성 2명(2), 장흥 2명(2), 고부(1)·고창(1)·능주(1)·담양(1)·동북(1)·익산(1)·함평(1)·해남(1)·화순(1)·홍덕(1) 각 1명이다.

「어고방」은 고정봉에게 사급되었던 문서로 원래 전하던 문서와 떨어져 있었으나, 다행스럽게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관련 문서인 수춘 고정봉 고문서도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고 광주 과거시험을 주제로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고문서 해설 도록도 간행되었다. 그리고 김재박의 ‘하어면양정’ 시권, 김치복에게 내린 내사본 『사기영선』등 원본 문서가 조사된 바 있다. 기학경의 ‘하어면양정’ 시는 문집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책(策) 과목의 시제인 ‘어제책문’으로 전하는 문서의 소재도 파악되었다. 보다 더 자세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유화의 길도 모색해 갔으면 한다. 이 글이 도움이 된다면 더 없는 다행이겠다. 관심과 제보를 기대한다.

55) 강화최(1), 경주최(1), 광산김(1), 광산노(1), 광산이(1), 나주오씨(1), 문화유, 밀양박(1), 상산김(1), 瑞寧柳(1), 순창조, 안동김, 여흥민(1), 寧川李, 永川李, 원주이(1), 장흥위(1), 장흥임(1), 전의이(1), 전주유(1), 창령조(1), 청주한, 충주박(1), 해남윤(1), 황주변(1)이다.

참고문헌

자료

-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홍재전서』
『면양집』
『검재집』
『수촌집』
『명고집』
『담양부지』
『광주목지』(규장각 소장,奎10800)
『광주읍지』(1924년)
「면양정 현판」

단행본

-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1798년 광주의 과거시험』, 2015.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광주 이장동 장흥고씨 고문서』, 2015.
담양문화원, 『국역 면양집』, 1995.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 『광주 충효동 성안 사람들의 삶과 앓 -호남 전통 문화 마을지층서-』, 나경수 외, 심미안, 2007.
전라남도, 『전남의 향교』, 1987.

논문

- 김희태, 「1798년 6월 18일, 광주목에서 ‘하어면양정(荷興俛仰亭)’을 시제로 과거를 보다 -조선후기 광주목 설행 도과(道科) 관련 기록의 검토와 활용-」, 『향토문화』 32, 향토문화개발협의회, 2013.
김희태, 「1798년 광주 과거시험 어고방(御考榜)에 든 장흥 선비들-광산김씨 김상휘, 장흥위씨 위백순-」, 『장흥문화』 38, 2016.
김희태, 「1798년 광주목 도과, 전라도의 인재명단 어고방」, 『금당문화』, 광주남구문화원, 2014.

- 김희태, 「조선후기 과거시험 기록, 고정봉의 등과시말기(登科始末記)」, 『향토문화』 34, 향토문화개발협의회, 2015.
- 김희태, 『광주 이장동 장흥고씨 고문서 -수춘 고정봉선생 관련-』,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호남권한국학연구센터, 2014.
- 김준·김희태, 「광주, 전남, 호남의 상생, 상생의 문화 -지역문화의 융성과 지역발전(3)-」, 『생명전남』 제83호, 전남발전연구원, 2014.
- 문희숙, 「『水村集』選譯 : 試券·登科始末記·記文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논문, 2017.
- 박종오, 「송순(朱純)이 경험한 특별한 의례, 회방연(回榜宴)」, 『한국시가문화연구』 46, 한국시가문화학회, 2020.
- 박훈평·안상우, 「한방렬의 매정보감 연구」, 『한국의사학회지』30-1, 한국의사학회, 2017.
- 조일형·이강복, 「정조의 호남 공령과 시행에 관한 연구 -고정봉의 「등과시말기(登科始末記)」 분석을 통하여-」, 『호남문화연구』5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5.
- (UCI: G704-001854.2015..58.006)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http://hncostma.org>]

| Abstract |

A Study of Special Examinations of King Jeongjo based on 「Eogobang」

Kim, Hee-tae

Former Cultural Heritage Senior Researcher, Jeollanam-do Provincial Government

「Eogobang」 in the collections of Gwangju History and Folk Museum is the list of candidates who passed the special examination that took place in Gwangju-mok in Jeolla-do in 1798 (22nd year of King Jeongjo) and includes the stamp of 'Eogo (king's decision)' as it was bestowed by King Jeongjo himself. The title of the poem that was tested in Gwangju-mok was 'Hayeomyeonangjeong' related to the 60th anniversary ceremony (1579) of Song, Soon (1493~1582, pen name: Myeonangjeong) as a government official. By interpreting the poem, 'Hayeomyeonangjeong,' it was stressed that Song, Soon passed the examination when he was 20 with the greatest excellence in composition skills at that time, followed the righteous way and was always dedicated to his post while serving four generations of kings, and served his hometown in Myeonangjeong while educating the Confucian scholars. He was particularly recognized for his loyalty to the kings and fairness to the post for 60 years. To celebrate his life, his literary pupils and the governors of neighboring towns gathered together to praise him and carry the bamboo

carriage. The poem was written to cherish his spirit as a scholar of Honam.

King Jeongjo scheduled a special examination to select gifted minds in the local region, so the scholars came from all over Jeolla Province to attend three out of five tests at Gwangsangwan, a pavilion for guests. 『Eogobang』, the list of candidates who passed the examination, is a record of an examination taken by 69 scholars in Honam and an invaluable resource of the systems and rural societies of that time.

Among the 69 students listed in 『Eogobang』, 53 passed the examination. Two of them with the highest scores (Goh, Jeong Bong and Yim, Heung Won) were qualified for the final examination and received 14 puns as rewards. The students with the next highest scores (Bak, Jong Min and Jeong, Joo Hwan) were assigned to the Chambong (9th class) position of Gyeonggiyeon and Jogyongmyo and received 12 puns as rewards. The 16 students with lower scores were bestowed books such as 『Sagiyeongseon』, 『Juseobaekseon』, and 『Oryunhaengsil』 along with brushes and ink bars.

The positions of 69 scholars listed in 『Eogobang』 were 49 [34] in Yuhak, seven in Saengwon, 12 in Jinsa, and one in Tongdeongnang. Tongdeongnang is a 5th-class literary position.

Considering the family names, there were four from the Bak Family of Bannam, four from the Jeong Family of Hadong, three from the Bak Family of Suncheon, three from the Yi Family of Jeonju, three from the Yi Family of Hampyeong, three from the Jeong Family of Yeongil, three from the Shin Family of Goryeong,

three from the Gim Family of Gwangju, two from the Yang Family of Namwon, two from the Yoon Family of Namwon, two from the Yi Family of Yeonan, two from the Noh Family of Pungcheon, two from the Gim Family of Ulsan, two from the Nam Family of Euiryeong, two from the Goh Family of Jangtaek, and two from the Gi Family of Haengju.

Considering the place of residence, 23 students were from Gwangju, 12 from Sunchang, six from Naju, six from Changpyeong, four from Namwon, two from Boseong, two from Yeonggwang, two from Jangseong, and two from Jangheung.

「Eogobang」 was first bestowed to Goh, Jeongbong and it was separated from the original letter until it was collected by Gwangju History and Folk Museum. The old document of Goh, Jeong Bong (Pen Name: Suchon) has been confirmed through research and a special exhibition was held on the government examination of Gwangju. An interpretation of the old document has been published and the document has been donated. The authenticity of Gim, Jae Bak's 'Hayeomyeonangjeong' and 『Sagiyeongseon』, the government document bestowed to Gim, Chi Bok, has been surveyed. Gi, Hak Gyeong's 'Hayeomyeonangjeong' was found in a collection. Recently, the document of 'Eojechaekmun' stating the test questions has also been found. It is hoped that more studies and researches would take place to explore the ways to share the findings.

Key words : Eogobang, Government Examination, Special Examination of Gwangju-mok, Hayeomyeonangjeong, Old Document of Goh, Jeong Bong

<표> 1798년 광주목 도과 어고방 인명록 현황56)

번호	인명	지역	응시과목 평가					年	本	居	父		현조			기사
			詩	賦	義	箒	策				지역	인명				
1	高廷風	幼學	二下	三中		三下一	56	長澤	광주	학생	映	忠烈公	高敬命	후손	14分 直赴殿試	
2	任興源	進士	三上一	三中		三中	58	長興	보성	兪知	鏡泰	獻納	長源	弟	"	
3	朴宗民	生員	二下一			三中	36	潘南	나주	학생 / 生父	厚源/奇源	大司成	東說	후손	12分 本道廟殿參奉調用	
4	鄭靑煥	進士	二下			三下	39	迎日	창평	생원	桔	文淸公	澈	후손	"	
5	柳東煥	生員		三中	草三中		草三下	40	瑞寧	순창	부사직	匡天	忠毅公	彙進	후손	10分 直赴會試
6	吳相淳	幼學		三下	三中魁		草三下	50	羅州	창평	진사	普源	검열	希道	후손	8分 繪2分(6인)
7	朴定源	生員	三中			三中魁	次上	50	潘南	나주	학생	師幸	대시성	東說	후손	"
8	林煥遠	幼學	三上			三下	次上	49	羅州	나주	학생	國憲	부제학	泳從	증손	"
9	朴宗學	幼學	三上			三下	次上	41	潘南	나주	학생	奇源	대시성	東說	후손	"
10	李大圭	進士		三上		草次上	草三下	61	咸平	영광	학생	師俊	지명	岸	후손	"
11	金在博	幼學	三上			草三下		49	高山	광주	학생	鳴鐸	判中樞	德生	후손	"
12	柳翔之	進士		三下	三下		草三下	51	全州	남원	학생	蓮	대시간	軒	후손	6分 繪1分(5인)
13	奇學敬	進士	三下			草三下		58	幸州	광주	참의	彥觀	文憲公	大升	후손	"
14	鄭潤吉	進士		三中一	草次上		草三下	76	河東	광주	학생	溥弼	文節公	守忠	후손	"
15	盧翼遠	幼學		次上	草三中		草三下	53	豐川	남원	통덕랑	權	文孝公	禎	후손	"
16	楊宗楷	進士	三上一				55	南原	순창	학생	堰	孝公	自亨	汝禎	후손	"
17	李玄祐	進士		次上	草三下		三下	55	光山	광주	진사	彥根	藝文直提學	弘吉	후손	4分 繪1分(13인)
18	南 煜	生員		三下	次上		草三下	60	宜寧	능주	학생	夏明	典翰	褒	후손	"
19	高廷說	幼學		三下	草三下			69	長澤	광주	학생	暹	忠烈公	高敬命	후손	"
20	朴道欽	幼學		三下	草三下			59	密陽	고부	학생	濡	승지	贊	후손	"
21	鄭在勉	幼學	次上			草三下	草三下	39	迎日	창평	교리	福煥	文淸公	澈	후손	"
22	金相徹	幼學	三中			次上	次上	52	光山	장흥	통덕랑	宗澤	忠肅公	深	후손	"
23	李一成	幼學	三中				次上	51	延安	순창	학생	志謙	文淸公	後白	후손	"
24	盧文達	幼學		三中		次上		39	光山	광주	유학	光岳	대시성	自亨	후손	"
25	朴孝德	幼學	三中					47	忠州	광주	유학	襲	文簡公	詳	후손	"
26	李得一	生員		草三中	草次上		次上	65	全州	익산	학생	廷燮	河原君	錡	후손	"
27	鄭致煥	幼學		草三中				51	迎日	창평	생원	桔	文淸公	澈	후손	"
28	尹致觀	幼學		草三中				42	南原	순창	학생	紳燭	文孝公	孝孫	후손	"
29	邊相琛	生員		草三中				59	黃州	장성	생원	得衡	宗簿寺正	以中	후손	"
30	崔濛之	幼學		三下		草次上	次上	66	慶州	광주	학생	宗濟	장령	亨漢	후손	2分 綴1分(24인)
31	閔致根	幼學		三下	次上		次上	62	驪興	동북	학생	濟益			"	"
32	金在鉉	幼學		三下	次上			41	光州	광주	현감	致光	忠壯公	德齡	방손	"
33	申斗權	幼學		三下	草次上			37	高靈	순창	승지	景濬	좌찬성	公濟	후손	"
34	朴重源	進士	次上			三下		52	潘南	나주	학생	師華	대시성	東說	후손	"
35	鄭鳴東	幼學		三下			草次上	78	河東	광주	학생	泰河	文節公	守忠	후손	"
36	林炳遠	幼學		三下	次上		上	64	羅州	나주	첨지	龜夏	지명	璋	후손	"
37	鄭潤行	幼學	次上			三下		55	河東	광주	都正	德弼	文節公	守忠	후손	"
38	李永緒	幼學		三下	次上			33	咸平	합평	통덕랑	儒性	知中樞	弘稷	손	"
39	奇商履	幼學		三下				59	幸州	광주	학생	宗協	貞武公	虔	후손	"
40	金百休	幼學		三下				49	蔚山	순창	학생	邦楫	文正公	麟厚	후손	"

56) 1798년 「어고방」 문서를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어고방(御考榜)」으로 살펴본 정조대 도과시험 고찰 129

번호	인명	직역	응시과목 평가					年	本	居	父		현조			기사
			詩	賦	義	箋	策				지역	인명				
41	南極擘	幼學		三下				63	宜寧	담양	학생	道興	전한	褒	후손	〃
42	李如樛	幼學		三下				59	原州	고창	副率	毅敬	지령	彬	후손	〃
43	朴聖潛	幼學		三下				53	順天	광주	학생	周鎭	文肅公	錫命	후손	〃
44	崔鼎奎	幼學		三下				46	江華	창평	장령	鳴玉	장령	時望	후손	〃
45	李志文	幼學	三下					30	全義	광주	유학	炬	文貞公	愼儀	후손	〃
46	曹翊絃	進士	次上		草次上	草三下		62	昌寧	화순	학생	粹玉	감억	悞	현손	〃
47	尹 情	進士	次上		草次上	草三下		57	海南	보성	학생	德廉	忠憲公	善道	후손	〃
48	李以鎰	進士		次上		草次上	草三下	55	全州	영광	同知	馥遠	襄度公	天祐	후손	〃
49	李宜協	幼學		次上		草次上	草三下	41	延安	해남	참봉	文述	文淸公	後白	후손	〃
50	魏伯純	生員		次上	草次上		草三下	62	長興	장흥	진사	文德	현감	伯珪 弟	〃	
51	金頤祖	通德郎			次上		草三下	48	蔚山	장성	감찰	樂賢	文正公	麟厚	후손	〃
52	朴聖謙	幼學		次上		草三下		69	順天	광주	학생/生父	昇鎭/慶鎭	文肅公	錫命	후손	〃
53	李尙蓋	幼學		草三下				68	全州	흥덕	학생	如梓	승지	眞馨	현손	〃
54	李成燁	幼學		次上		草次上	次上	46	咸平	광주	학생	宗	이조참판	兢	후손	次上(3인)
55	尹致彦	幼學	次上			草次上	次上	44	南原	순창	학생	禮淵	文孝公	孝孫	후손	〃
56	金履廉	幼學		次上		草次上	次上	39	安東	창평	승지	若行	文忠公	尙容	후손	57)
57	金致福	幼學	次上			次上		45	光州	광주	유학	擇鳴	忠壯公	德齡	후손	(8인)
58	盧 稷	幼學		次上	次上			41	豐川	남원	학생/生父	應文/廷文	文孝公	禎	후손	〃
59	趙泓埜	幼學		次上	次上			37	淳昌	순창	첨지	匡烈			〃	〃
60	柳相燾	幼學		次上	次上			28	文化	광주	유학	德種	忠景公	亮	후손	〃
61	金致儀	幼學	次上			草次上		25	光州	광주	유학	得鳴	忠壯公	德齡	후손	〃
62	楊得熙	幼學	次上			草次上		43	南原	순창	학생	世岳			〃	〃
63	申輔權	幼學	次上			草次上		40	高靈	순창	유학	景淑	좌찬성	公濟	후손	〃
64	申宗權	幼學		次上		草次上		30	高靈	순창	학생	景議	좌찬성	公濟	후손	58)
65	李性傳	幼學		次上				48	寧川	남원	학생	樾			〃	(5인)
66	朴明植	幼學		次上				47	順天	광주	학생	聖浩	諮議	光一	현손	〃
67	鄭義燦	幼學	次上					44	河東	광주	유학	碩東	文節公	守忠	후손	〃
68	李載燮	幼學		次上				31	永川	광주	유학	貞根	에문지제학	宗儉	후손	〃
69	韓啓斗	幼學	次上					36	淸州	순창	유학	世教	安襄公	終孫	후손	59)

투고일 : 2021년 1월 16일 심사기간 : 2월 1일 - 2월 12일 게재확정일 : 2월 15일

57) 以上三券 次上 三人各 丙下安 寶 五倫行實一件 厚紙五卷 筆五枝 墨五笏
 58) 以上兩券 次上 八人各 丙下安 寶 史記英選一件 厚紙四卷 筆四枝 墨四笏
 59) 以上單券 次上 五人各 丙下安 寶 朱書百選一件 厚紙三卷 筆三枝 墨三笏

